

“詩作은 ‘걸림’ 삭이는 체내림”

산문박의 詩

시인 황지우 씨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더는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정치적 폭력에 의해 건축되고 확장된 도시'를 떠나 귀향한 지 7년만이다. 공교롭게도 서울로 이사하고 난지 얼마안돼 그를 증오에 시달리게 했던 5공이 감옥으로 가는 것을 봤다.

"전두환씨가 감옥가는 날 밤에 샤워하는 아내의 등배를 밀어줬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유신과 5공 때, 그러니까 대학시절과 신혼의 시절을 맞바꾼 때였다. 어려웠던 시절 80년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압선 밑을 지나온' '머리 돌 등지 하나 없는 야생의 세월'이었으며, "땀이, 나의 근황은 위독하다. 위문과 다오. 붉고 흰 국화꽃 들고, 장의사 집안을 지날 때마다 나는 섬짓됨

남기 마련이다. 가해지는 보복의 두려움을 차단기 위해 더 큰 폭력으로 무장하고, 당한 자는 증오의 독에 스스로도 중독되어 몰서리친다.

"개인적으로 가장 시달렸던 것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었어요. 증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에서 '마음을 채하게 한다'고 썼는데, 시는 체내림의 방법이었죠."

그의 귀향은 증오를 달라고 체내림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늦깎이 스님인 큰형의 절을 찾았다. 참선수행도 하고, 청화스님의 법문도 들었다. 이때의 경험은 그의 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교와의 접촉이었다. 그리고 '마치 번개에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타까움을
시로 조각으로 표현

“禪은 시적 영감 터주는 고압전류와 같아요”

있겠다"며 고통을 호소하던 때였다.

서울로 돌아온 것이 못내 '부끄럽고 열치없는 짓'이라면서도, 도시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가장 큰 구심력은 교육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 제 771104-156282호와 딸 제 790916-244137호. 그는 암흑갈던 그 시절 자신들을 주민등록번호에 묶어 그렇게 불렀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나는 너다> <계는 속의 연꽃>으로 이어지는 그의 시의 태반은 80년대다. 그의 시를 두고, 탐미주의자들은 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평가치는 과잉치행위로 불렀다. 아이들 민화나 나오는 해골표지, 신문기사와 도표가 그대로 인용됐으니 그런 혐의를 받음만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폭력에 대한 비웃음이며 통렬한 풍자이며 저항이라고 했다.

"초기시의 형태과, 발췌 아니고 내가 시달렸던 정치적 폭력에 대한 시인의 대응이었다고 봐주세요. 아반이 유행하는 현실에서 시가 최후로 취할 수 있는 몸짓이었다고 봅니다. 언론이 본격적으로 통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봉쇄되었고, 검열의 공포에 떨어졌어요."

폭력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은 물론 그것에 시달린 사람에게도 상처로

던 (임제록)을 읽었다.

친절하고 건넌가기 알맞은 보폭으로 놓여있는 징검다리 같은 <조주록>과는 달리 <임제록>은 가종자체가 다분히 거칠고 형태과적이라는 느낌을 짙게 맡았다.

시 또는 시쓰는 행위란 무엇인가. 그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시와 있다면, 언젠가 시를 추구하기보다는 시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선과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우리말로 시를 쓸 때는, 서구처럼 음운론적인 자기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말의 시는 선사들의 깨달음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시는 문학장르 가운데서 말을 가장 적게 쓰는데, 선은 불립문자라고 하죠. 말을 부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시도 말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선과 아주 가깝죠. 그러나 선은 말의 사다리를 뒷발로 걸어버리는데, 시는 말의 사다리에 어정쩡하게 서있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것이겠죠."

따라서 그는 시인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는 언어만이 아니라 언어 바깥에도 있다는 생각을 지난 5월 조각으로 드러냈다. 조각은 '침묵하는 언어'라고 정의했다. 스러져가는 것의 가치,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선적 상상력으로 담은 조각전을 열며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런 말도 했다. "선 자체는 어렵지만, 선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터주는 고압전류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실신상태에 충격을 가해 깨어나게 하듯이." 그리고 조각과사와 소묘가 선사의 선사에서 당시(唐詩)를 능가하는 높이와 품격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에서 "나무는 자기의 몸으로 나무가 된다/아아, 카침내, 끝내/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꽃피는 나무이다"라며 속곳을 피웠던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그때 그 시절을 머리칼 쓸어올리며 먼눈으로 재어볼만큼 걸어왔다. 세월은 그리 변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 어찌 이렇한, 마치 날 낚으면 섬뜩거리는 신경통처럼 아픔이 배어나지 않을까. 시인의 삶은 천황일까.

시인은 원초적으로 비극적인 삶을 좇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고통을 데리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고통을 데리고 살고 삶의 가치를 알기위해 지금을 되돌아 봅니다”

정성운 기사

열심히 공부하면 스님처럼 되지요

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면 스님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외람된 생각은 아닌지요. (김주영·부천시 금정구 창전동)

누구나 다 본래 부처로 태어났고 부처 될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학력도 나이도 성별도 지역도 따로 필요없는 공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같이 평범한 중생이 어찌 성불할 수 있겠나'하고 지레 물러서는데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퇴굴 심어달로 중생을 끝내 중생이게 만드는 병통입니다. 누구든 무한한 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이를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부처라는데' '본래부터 불성을 지녔는데' 하며 자만해서도 안됩니다. 또 남들은 공부에 진척이 있다는 데 나는 왜 잘 안되나 하는 조급한 마음도 내서는 안됩니다. 또 이 공부엔 계단이 있다, 없다는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있다면 없는 것이고 없다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턱을 바

도 있고 하겠지만 말없이 마음도리로 하라고 했다해서 일부러 방어리 흉내내야 할 까닭도 없는 것이지요. 마음을 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 하는 것도 그와같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수천마디 하고도 한 마디 한 사이도 없고 말 한 마디 안하고도 수천마디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생각은 가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규정짓지 마시고 상황따라, 환경따라, 용도따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진짜 멋있는 일입니다. 그럴 일일이 맞는다 불린다 어떻게 관정하시려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될대로 되라는 결코 아닙니다. 될대로 되라고 하면 벌써 생각을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우가 다 나의 공부재료라는 점을 투철히 인식하신다면 맞느냐 틀리느냐는 생각, 마음을 낸다, 마음을 내서 듣는다는 생각 이전에 되돌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불사를 막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다니는 사찰에서는 막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찰의 큰 스님과 주지스님,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의 원력에 의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찰의 신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가 있으니 계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깨달아 얻는 바가 따로 있지 않으니 계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걸리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스승만큼 되어보겠노라는 생각은 좋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부처님을 닮고 그렇게해서 부처의 과유에 이르렀다고 발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마음의 반야줄을 잡고 꾸준히 뛰어나가기 바랍니다.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냈는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매달리 있다고 하면 그 매달리다 크게 감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연시를 넘기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마음 기울여 도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생각 내는 것과 그런 마음 돌려주는 것과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현우·대전 유성구 도룡동)

어떤 생각을 낸다하기 이전에 경우에 따지면 그걸 보고 듣고 아는데로 그냥 닦힌 것이지 생각을 내서 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맞닥뜨리니까 절로 생각이 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났으니가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행동을 했으니가 해결도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돌아갈 뿐입니다. 생각을 일부러 지어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말없이 할 수도 있고 말을 해야 할 때

도들은 진정으로 부처님전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스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김한성·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체만물의 손없는 손, 빈 손이 다 거들어

우리가 불사를 할 때 다같이 신심 기울여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같이 더불어 하는 것이지요.

불사에 드는 벼를 한 장, 시멘트 한 포대, 서래래 하나,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서 잘났기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혼자했다'라는게 아무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없어서 애타하게 아니시라 이쪽에서 했다, 내가 했다고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가 하는 것이지 힘이 있어 했다라는 점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쓰는 문자 하나, 내가 지금 지리하고 있는 이 상황의 구석구석에 오로지 혼자만 했다라고 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혼자 한 게 아무 것도 없으니 실령 내가 했다고 해도 그것은 이름뿐이지 실체는 모두 다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불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집고 법당 올리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라 일체가 불사입니다.

지금 다니시는 사찰에서 공들여 불사를 시작했더니 그 또한 뜻깊은 불사입니다만 그것은 절체로서의 불사이지 개별적인 불사는 아닙니다. 동참하는 마음이 더불어 같이하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일류 문화유산

한글 대장경

민족의 자존심 국보 팔만대장경

- 현재 172권 간행 보급중
- 98년까지 250권 완역예정
- ▶ 정가 1권 12,000원
- ▶ 1권당 700쪽 내외 호화양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구입처

전화: (02) 272-2398 (02) 269-2972
FAX: 278-4069

한글팔만대장경 목록

01. 장아함경	15. 분본행집경 1-2	51. 대방등대집경 1-2	68. 중론백론	91. 본생경(자아타키) 1-5	129. 근본실체유무비나아 1-2	145. 근본실체유무비나아집사 1-2	168. 원강국사집 (외)
02. 중아함경 1-3	17. 친집백연경	53. 대예경 (외)	69. 현양 성교론 (외)	96. 대보적경 1-5	131. 정법화경 (외)	147. 심주비바사론 (외)	169. 소오당집 (외)
05. 집아함경 1-3	18. 현우경 (외)	54. 아차말보살경 (외)	70. 대승기신론 소별기	101. 대지도론 1-5	132. 예념미타도량참법	148. 부자합집경 (외)	170. 반니원경 (외)
08. 별역잡아함경	19. 출요경 (외)	55. 대집회정법경 (외)	71. 부유당집 (외)	106. 중경록 1-4	133. 대비로자나상불가지경	149. 무량청정평등각경 (외)	171. 분본행경 (외)
09. 중일아함경 1-2	20. 법구경 (외)	56. 현길경 (외)	72. 선문영송 1-5	110. 유가사지론 1-4	134. 기세인본경	150. 대승보살정정법경 (외)	172. 불퇴집법륜경 (외)
11. 대루탄경 (외)	21. 대반야경 1-20	57. 유마경 (외)	77. 조당집 1-2	114. 불성론	13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법록	151. 니야아빈두 (외)	
12. 불반니원경 (외)	41. 법화경	58. 입능가경 (외)	79. 전등록 1-3	115. 아비달마집이문족론	136. 해심밀경소 1-2	152. 상실론	
13. 아라한구덕경	42. 화엄경(60권본) 1-3	59. 정법 엄저경 1-3	82. 무용당집 (외)	116. 아비달마식신족론외	138. 해동고승전 (외)	153. 지혜와 재비의 말씀(외)	
14. 비화경 (외)	45. 화엄경(80권본) 1-3	62. 사분율 1-3	83. 백곡집, 월저당집	117. 아비달마품유족론외	139. 대각국사문집외 7	154. 대승본생심지관경(외)	
	48. 화엄경(40권본)	65. 선견율비바사	84. 법원주림 1-5	118. 아비달마대비바사 1-8	140. 범망경술기(외)	155. 방광대장경(외)	
	49. 열반경 1-2	66. 구사론 1-2	89. 경율이상 1-2	126. 십승율 1-3	141. 화엄경타원기 1-4	156. 과거현재인과경(외)	